

지역 소식통

2023년 귀속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신청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근로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 소득세(특별징수분) 환급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시를 납세자로 하는 사업주 등 특별 징수의무자가 근로주체에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의 10%를 특별 징수하는 지방세다.

특별징수의무자는 국세청에 연말정산 확정 신고를 하고 국세환급금을 받는 경우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도 국세환급금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은 지난 10일까지 세무서로 신청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 후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및 첨부서류(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 연말정산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등)을 김제시청 세정과로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다음달 30일까지 무료 처리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경지에 방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집중수거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 수거 활동은 25일 부터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수거 대상 품목은 영농 현장에 방치돼 있는 폐비닐과 이와 함께 폐차광막, 폐부직포, 폐반사필름, 목재파래트 등을 집중 수거할 방침이다.

농민들이 영농폐비닐과 영농 폐기물을 구분해 톤백에 담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고 후 지정된 공동집하장에 배출해 일정량이 모이면, 영농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 계약업체가 수거하고 영농폐기물은 청소자 원과에서 무료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 장은 "영농 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마을 곳곳에 방치되어 있고, 불법 소각도 빈번함에 따라 쾌적한 농촌 환경을 위해 집중 수거 기간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지역경제 활성화 꾀한다

민·관·공·학 지역협의체 15개 기관과 협약 체결

완주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15개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

25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을 위한 완주군 민·관·공·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완주군청(군수 유희태),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한중

관), 경제살리기 완주지역본부(본부장 김종년), 소상공인연합회 완주군지회(회장 정양선), 완주군자영업소상공인연합회(회장 김용일), 완주군 청년경제인연합회(회장 이승연), 완주산단진흥회(회장 김용현), 삼례시장상인회(회장 박옥희), 봉동시장상인회(회장 이현구), 고산시장상인회(회장 김경화), 기업은행 완주산단지점(지점장 이덕일), 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김대호), 전북은행 완주군청지점(지점장 김영필), 하나은행 전주공단지점(지점장 노석만), 우석대학교 LINC3.0 사업단(단장 이종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센터장 박성진) 등 16개 기관 대표가 참석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지역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직면한 경영 현실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공동으로 대응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협의체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소상공인 종합지원대책과 현장형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한편, 소상공인·소기업 특화 정책연구 개발과 지역 상권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고 시대를 맞아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협의체와 함께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과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25일 완주군은 우석대학교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소상공인·소기업 지원'을 위한 완주군 민·관·공·학 지역협의체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김제시, 중기부·행안부 지방소멸대응 지역혁신 공모사업 예비 선정

국비 등 60억원 투입, 특장차 미래 차세대 성장 프로젝트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지방소멸 지역 극복과 관련해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시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으로 주관한 2024년 지방소멸대응 지역 중소기업 혁신 공모사업(약칭 지역혁신 공모사업)에 예비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혁신 공모사업은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과제를 기획하면 중기부와 행안

부가 함께 지역 중소기업 R&D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지역소멸위기 대응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도입된 프로그램이다.

지난 1월 107개 인구감소(관심)지역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은 결과, 34개 기초지자체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및 대면심사를 거쳐 총 22개 지자체 사업이 예비 선정됐다. 예비 선정된 지자체는 약 3개월간 9백만원원 규모의 기획컨설팅을 지원받으며 10월 중 최종 선정 결과 발표가 이뤄진다.

시는 특장차 혁신 클러스터와 연계해 중소기업 육성·지원하는 '미래 Special 차(car)세대 성장 프로젝트'로 특장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거점 공간을 지방소멸대응기금 50억원을 투자해 구축하고 친환경·디지털 대전환 대응 맞춤형 특장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내용으로 공모에 신청했다.

또 관내 특장차 제조·부품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개발 및 공정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특장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2년 동안 국비 등 최대 10억원을 투입하게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 추진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다채로운 문화 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실시하며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 등으로 장기간 방치된 노후 빈집을 정비해 주거 취약계층 및 청년활동가, 귀농·귀촌인 등에게 보

금자리 제공 또는 다채로운 문화 커뮤니티 공간 창출을 위해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청된 빈집의 노후도와 활용 가능성 등을 심사해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 4세대를 모집해 방치된 빈집의 활용도를 더 높일 예정이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은 희망하우스 리모델링 사업과촌집리모델링 사업이 있으며, 해당 지원사업은 4년간 무상임대를 조건으로 1년 이상 방치된 빈집의 리모델링사업비 일부를 최대 2,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빈집 리모델링 지원사업의 임대주택 추가모집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이후 임차인을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할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25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준공식을 가졌다.

김제,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복권기금 30억원 들여...일부 확장해 직업적응 훈련시설 조성

김제시(시장 정성주)가 장애인복지타운 증축을 통해 다양하고 질 높은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25일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정성주 김제시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애인복지타운 증축 준공식을 갖고 새롭게 조성된 공간에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인사말씀, 감사패전달, 축사, 테이프 커팅식, 프로그램 시연, 시설라운딩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금번 증축된 공간은 복권기금 30억원을 들여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3층과 2층 일부가 증축 됐으며, 김제시 장애인평생교육센터 기존 2층 공간을 일부 확장해 장애인 직업적응 훈련시설을 조성했다.

박승택 장애인종합복지관장은 "증축으로 확장된 공간을 활용해 보다 다양

하고 질 높은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해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는 복지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장애인평생교육센터장은 "이번 공사로 확보된 직업재활교육실을 활용해 장애인 직업적응능력과 직무기능 향상 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 훈련프로그램(교육)을 통해 장애인의 자활 의욕을 북돋아 안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김제시민들과 많은분들의 도움으로 장애인복지타운을 증축할 수 있었다"며, "이번 증축을 통해 장애인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열악한 상황이 개선되었길 바라고, 중증 장애인의 지원 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고산도서관, 동아리 공모사업 선정

섬유공예 동아리 '소잉소잉' 전북 유일 지원받아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 (재)한국도서관문화진흥원이 주관하는 '2024년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25일 완주군에 따르면 '도서관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 공모사업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하고자 접근성이 좋은 지역도서관을 거점으로 선정해 지원한다.

올해 사업에는 전국 185개 도서관이 신청했으며, 이 중 50개 공공도서관만 선정됐다. 특히, 완주군립 고산도서관은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됐다.

다문화, 농업 분야를 특화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고산도서관은 운영 사업비로 국비 300만 원을 지원 받게 됐다.

선정된 고산도서관 동아리는 섬유공예 동아리 '소잉소잉'으로 '그림책 삽화와 캐릭터를 섬유공예 작품으로 만들어 올해 평생학습축제와 완주군 관내 도서관에서 전시할 예정이다.

서진순 도서관사업소장은 "도서관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 독후공동체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자연스럽게 모든 주민에게 그 효과가 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